

## “학생건강관리 정착에



### • 출퇴근 시간의 구분도 없이 검사업무에 임하는 건협전북지부

싸늘한 공기가 겨울을 알리듯이 코끝을 스쳐지나가는 아침. 기자가 건협 전북지부를 찾았을 때는 이미 많은 검사팀들이 출장을 나가고, 남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검사기간 동안은 출퇴근 시간의 구분이 특별히 있지 않다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뭉클한 감동과 뿌듯함이 가슴 가득히 차 올라오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 • 총 7만여명의 간염검사를 실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60여개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7만여명의 간염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자랑 같아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그 검사기간동안 저희 지부 검사팀이 쏟은 노력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나니,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

##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 학생 및 교직원 7만여명 간염검사

“

健協 전북지부는 '89년 한해동안 전북도내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 7만여명에 대한 간염검사를 실시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의 협조와 각 학교 양호교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능했던 이 간염검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었다.

검사기관 동안 간염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대한 보건교육도 병행하여,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업은 검사에서 결과통보, 그리고 접종까지 모든 사업의 과정에서 관, 민, 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90년도에는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게 될 이 사업의 과정을 건협 전북지부와 교육위원회 등을 찾아가 들어보았다.

”

에 보람도 느끼고요.』

전북지부 설성수 사업과장은 이번 간염검사 사업을 마치고 난 소감을 이렇게 말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 검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도 교육위원회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에 대한 건강검사를 출장하여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했을 때, 교위 사회체육과 보건계에서 학생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계몽해주는 등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 • 모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간염검사

이 사업이 실현되기까지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 사람은 비록 사회체육과 김창영(53세) 보건계장 이다.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간염검사는 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학생들이 꼭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검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집단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몇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건협이 요청도 있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라면서 김창영씨는 국민건강을 위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히 말한다.

『현재는 희망자에 한해서 자비부담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기생충관리사업처럼 국가나 지역적 측면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면서 국민건강관리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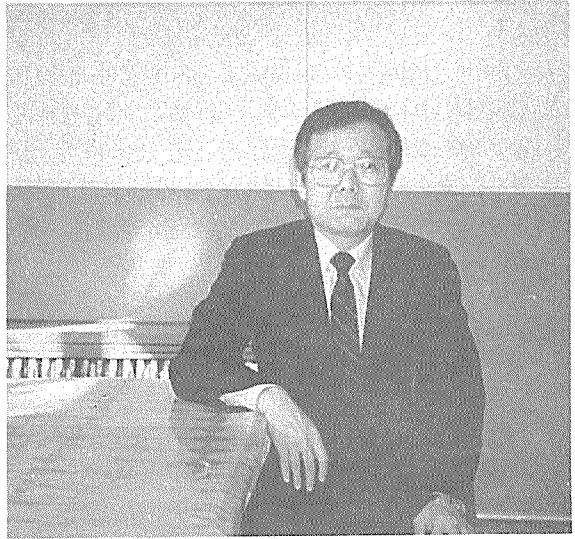
◀ 지난 3월부터 총 7만 여명의 초중고생 간염 검사를 실시한 건협은 학생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이 기쁘다고 말한다.

작을 위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히는 김계장은, '67년 보건직 공무원(전주시험 보건소)을 시작으로 하여 '79년 문교부 산하 보건직으로 전환하는 등 국민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

#### •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건강관리 정착의 지름길

한편, 설성수 전북지부 사업과장은, 『건협에서는 각 학교에 건강검사에 대한 공문을 띄우고 직접 학교를 찾아가 건강에 대한 계몽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냥 앉아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저희는 항상 몸으로 실

- ▶ 간염검사를 모든 학생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검사라고 말하는 김창영도 교육위원회 보건계장



천하는 것만이 국민 건강관리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합니다.』라면서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음을 강조하기도.

『그후 각 학교에서 검사 의뢰가 오고, 학교와 협의해서 검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일정에 따라 검사를 나갈 때는 가능한 학교에서는 보건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간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주 내용으로 다루었지요.』

#### ◦ 검사 인원에 관계없이 현지 출장·검사

건협 전북지부는 검사 일정에 따라 매일 4명 정도씩으로 구성된 2개조 검진팀이 많게는 1천3백여명, 적게는 백여명이 검사를 희망한 각 학교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팀에 참가했던 한 직원은, 『인원이 문제가 아니지요. 단 1명이 검사를 원했어도 저희는 달려갔을 겁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맡겨진 일이고, 또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라면서 자신의 작은 힘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하나의 밑알일 수 있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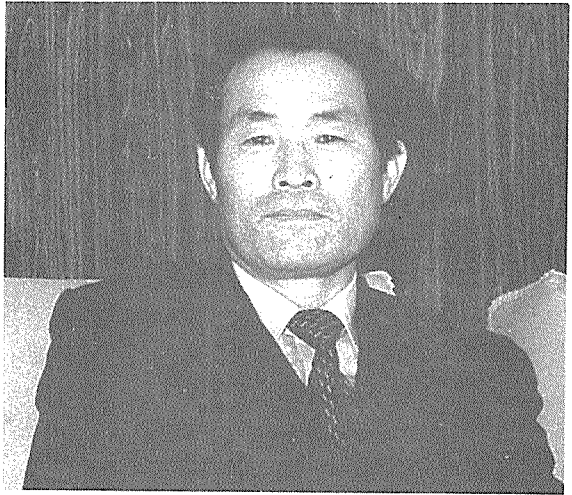
• 양호 교사들이 또 하나의 숨은 일꾼

『이번 사업에서의 또 하나의 숨은 일꾼이 있습니다. 바로 각 학교의 양호선생님들이십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분들께서는 각 학교에서 노력해주시지 않았다면 실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1인당 얼마 되지지도 않는 검사이며, 희망자를 접수하는 일들은 빛도 나지 않는 자질구레한 일들이지요.』

설과장은 또 이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양호교사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한다.

『그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일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나며 적극적으로 일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자세만 보아도 우리 나라의 건강한 미래의 보장되어 질 수 있지 않을까요?』

▶ 최 일선에서 많은 도움을 준 양호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는 설성수 과장은 얘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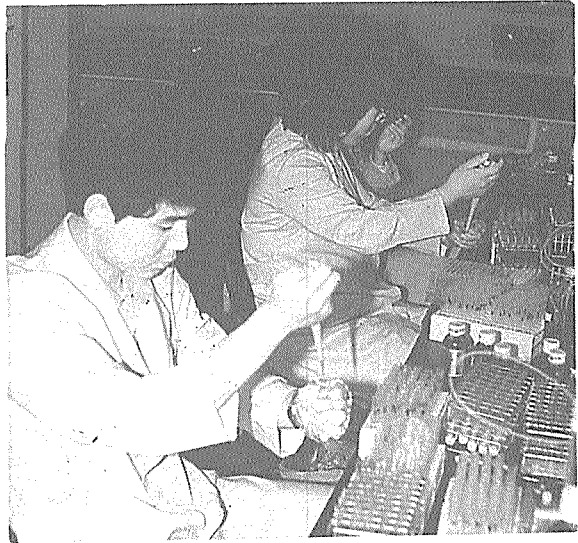
• 건강관리 정착 위한 협조 체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총 7만여명이 검사해서 결과통보는 각 개인과 학교측에 전달했습니다. 학교측에 전달할 레이타는 학생들의 건강체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었지요.』  
라고 설과장은 사후 조치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총 검사인원 중 67%가 접종대상자였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항체가 생겼거나 현재 간염을 앓고 있어서 접종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구요. 접종은 각 학교에서 접종이 편리한 기관을 직접 선정해서 실시했습니다. 주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

습니다.』라면서 설과장은, 『이번 사업을 마치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졌던 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보람이었습니다. 교육위원회, 학교, 보건소, 건협 등이 맡은 일을 소신을 가지고 하고자 했던 것의 결과가 아닐까 싶어 기쁘고, 또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도 잘 이끌어져 나갔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인다.

- ▶ 우리의 작은 힘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하나의  
밀알일 수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 • 우리의 노력이 곧 미래 건강의 희망

벌거벗은 들판 위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고 있는 늦은 오후, 전주를 떠나는 기차의 마음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안일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닐까.

일본은 국민건강관리 체계가 우리보다 20년이나 앞섰다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과 헌신으로 그들보다 훨씬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자신감이 생겨났다.

〈김정현 글〉